

# 진도 대파 활용한 간편식 전국 CU 편의점 통해 출시

### 진도군↔BGF리테일, 진도 대파 판촉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진도 대파 소불고기 유부초밥 간편식품 개발...인기 예상

진도 대파를 활용한 상품이 'CU 전국 편의점'을 통해 출시된다.

BGF리테일과 진도군이 최근 진도 대파와 진도아리랑 청정 농산물 홍보·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편의점 프랜차이즈 CU를 운영하는 종합유통서비스 기업인 BGF리테일은 이번 협약을 통해 3월 초 진도 대파를 활용한 '진도 대파 소불고기 유부초밥 (3,500원)' 간편식을 출시할 예정이다.

소불고기에 무기질 등이 풍부한 진도 대파로 향을 더한 신규 상품은 전국의 1만5,000여 개 CU 편의점을 통해 판매되어 소비자들의 인

기가 예상된다.

각 지역 특산품의 특징을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BGF리테일 상품개발팀을 지역 농가에 파견, 원재료의 품질과 이를 활용한 향토 음식을 확인하고 수십개의 레시피를 연구한 끝에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

진도군은 대기업과 연계해 새로운 판로 확대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마케팅 전략으로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다.

또 이번 협약으로 산지 유통 체계를 구성하고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CU 간편식의 품질을 한 층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진도군 브랜드 이미지 극대화와 지역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 역할 까지 예상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앞으로도 CU는 지자체와 협업해 우리 농수축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편의점 먹거리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BGF리테일이 보유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진도군 농특산물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판로 확보에 힘써 농업인이 살기 좋은 진도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진도 대파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표시 제61

호로 지정 등록되어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장흥군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사용 신청하세요”

### 1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장흥군은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산들해랑' 사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들해랑은 장흥군에서 생산한 농림축수산품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 공동브랜드다.

사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장흥군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적합여부 심사를 통해 승인한다.

사용허가를 받으면 TV, 신문, 인터넷 등 장흥군의 집중적인 브랜드 홍보 관리와 온라인 판매, 포장재 제작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들해랑'은 '산, 들, 해(바다, 태양)와 함께 자란'이라는 의미를 담아 넓게 펼쳐진 산과 들, 5개 읍면에 걸친 바다, 풍부한 일조량 등이 조화를 이루어 길이 흥할 장흥을 상징



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2019년에 공동브

랜드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총 13개 업체가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동브랜드 '산들해랑'의 지속적인 홍보와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며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 강진군, 강진만 생태공원 고엽갈대 제거 실시

### 주민 일자리 사업 연계, 생태환경 개선 및 쓰레기 수거 병행

강진군은 강진만 생태공원 갈대밭 주변의 고엽 갈대를 제거하여 새순이 풍성한 갈대로 자랄 수 있도록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약 4만㎡ 면적의 갈대를 제거했다.

고엽 및 부유 갈대를 제거하면 햇빛 수용력이 증가해 깃벌이 솟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1,131종에 이르는 강진만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유지 및 깃벌에 사는 저서생물의 생육환경에 보탬이 된다.

군은 2020년부터 매년 생태공원 내에 갈대

생육이 부실한 지점 등 노후 갈대 제거사업을 지역주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오고 있다.

황인준 환경축산과장은 "강진만 고엽갈대를 제거해 줌으로써 강진만 서식 생물의 생육환경도 지키고 탐방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도 수거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진만의 갈대밭을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해남군 매일시장 2층 장옥형으로 신축 개장

### 올 7월 완공목표...점포·청년몰·상인회사무실 등 조성



해남군이 오는 7월 개장을 목표로 해남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은 토지보상비와 건축

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 180억원을 투입, 연면적 1,710㎡, 지상 2층 규모의 시장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1층은 상설점포 66개소, 2층에는 청

년몰 12개소, 매일시장 상인회 사무실과 휴게공간 등이 들어선다. 이번달 중 매일시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점포 및 청년몰 입주자 모집과 계약, 점포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변 가설점포는 5월 임시상가를 조성·이전해 6월까지 운영된다. 기간동안 오·우수급사 및 도로포장을 마무리 하고, 7월경 점포 입주를 마치고 개장할 예정이다.

지난 1981년 해남유일의 상설시장으로 조성된 해남매일시장은 시설노후화로 안전 및 위생문제, 이용객 감소 등 문제가 제기돼왔다. 2016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된 후 공설화 과정과 일부 소유자들의 매매거부로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다가 2019년 12월 토지이전이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매일시장이 준공되면 쾌적한 시장 환경 개선은 물론 청년몰 운영 등으로 소비층이 넓어져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남읍 매일시장이 읍상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소상공인 대상 '마음 건강 치유프로그램 운영

### 오늘부터 접수...선착순 72명 모집, 참가비 전액 군 지원

완도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음 건강 치유프로그램'은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장흥 통합의료병원)에서 운영하는 1박 2일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3월부터 7월까지 4회 차로 나누어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스트레스 검사와 기본 검진, 아로마 테라피, 소금 찜질, 숲속 버스킹, 온열 베드, 뜸 치료 등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 전액은 군에서 지원한다.

참가 대상은 현재 완도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

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72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이며, 완도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교통과(☎550-555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마음 건강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